

쉐퍼의 서양 문명 비평 영화를 소개합니다

DVD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㉔ 성인경 (한국라브리공동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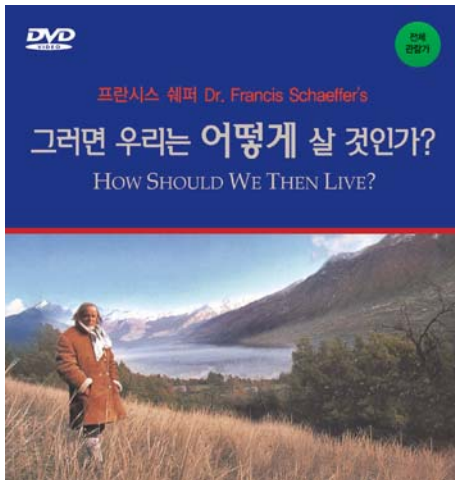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아시지요? 우리는 종종 태풍이 지나간 후에야 무너진 담과 벽을 고치느라 소란을 떨니다. 매년 여름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몇 차례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 집은 지붕에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웅벽이 기운 곳도 있고, 토사가 무너진 곳도 있고, 습기에 못이겨 곰팡이가 핀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태풍 “산바”가 지나갈 때는 저희가 사는 라브리 백암당 뒤쪽 웅벽이 무너질까 마음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미리 외양간을 손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상화된 성폭력 혹은 성폭행 후 살인 등의 소름끼치는 소식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동성애, 혼전 섹스, 혼외 불륜 등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요즘은 양성애, 성폭행 등 온갖 성운리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문화나 성장통(成長痛)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큼니다. 겉으로는 올해 ‘무역 8대 국가 진입’이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곳곳에 치욕적인 윤리 부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의 후유증 치고는 너무 큰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발전과 타락의 혼란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대정신(zeitgeist)을 꿰뚫어보며 현대 문명의 성장과 쇠퇴를 기독교 세계관의 눈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실패한 기독교 문명을 분석한 책이나 영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소리를 시작하면, “또 쉐퍼냐?” 혹은 “아직도 쉐퍼냐?”라고 싫증을 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보내준 글(중국은 우리의 땅끝입니다)에서 연변 과거대의 김진경 총장이 젊은 시절에 쉐퍼를 만난 것이 신앙과 지식이 하나 된 대학교를 만드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쉐퍼를 소개할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26살 김진경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주는 장학금으로 영국으로 철학을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근삼 목사(전 고신대 학장)가 김진경을 쉐퍼에게 소개하고 그가 스위스 라브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 숙박과 차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10시간이면 도착하는 길을 배로 약 65일간이나 걸려 프랑스 마르세유 항에 도착하니 쉐퍼가 보내준 초대장과 지도 그리고 100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봉투를 받아 들고 기차를 타고 스위스 라브리로 가서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과 더불어 쉐퍼와 밤새 토론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라브리 방문이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브리에서 장차 세우고 싶은 지식 공동체의 모델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진경의 고백입니다.

“나는 라브리에서 쉐퍼를 통해 (장래) 일에 대한 비전과 근거를 확립했으며, 신앙인의 윤리적, 실천적 삶, 제자의 삶을 배웠다.”

쉐퍼는 주님 곁에 간지 오래이지만, 그의 영화와 책을 통해 김진경과 같은 청년,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원치 않는 뜻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 한글판을 소개합니다. 김진경이 만난 쉐퍼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인간의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 행위를 좌우합니다. 오늘날 폭력과 사회의 붕괴는 극심해서 전 세계 많은 도시의 길거리는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혼란을 다스리고자 위협스럽게도 권위주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순응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로마시대부터 살펴봅시다.”




쉐퍼는 이 다크에서 직접 자기 발로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로마시대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술, 과학, 철학을 분석합니다. 그는 서양 역사와 문화가 성경적 세계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오늘날 서구 문명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개봉한 이 다크멘터리가 한글판으로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컨텍스트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10개와 부록 인터뷰까지 총 320분을 직접 들으며 한글로 번역해 주신 김호영씨, 번역 교정을 봐주신 김복경 목사, 한글 자막 더빙 기금을 대주신 염예지 화백, 복잡한 판권 계약 작업을 거쳐서 한국 교회에 좋은 선물을 해 주신 라이트하우스의 강인중 대표 등의 헌신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책은 이미 오래 전에 번역이 되었으니, 매일 혹은 매주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영화도 한두 에피소드씩 보면서 토론하는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회사 그리고 교회에서 서구 사상과 문화의 발전과 쇠퇴에 대한 기독교적 통찰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또는 DVD 제작사인 라이트하우스(02-711-74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후두암 때문에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의자에 묶어서 강단 위에 앉혀 주어야만 겨우 몇 마디를 할 수 있었던 임종 직전의 쉐퍼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강의를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스위스 목동 바지에 하얀 염소수염을 휘날리며 마지막 남은 힘까지 주님께 다 바친 작은 종의 직강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소개

 **라브리공동체** L'Abri Fellowship Korea

라브리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및 학숙(學宿)입니다. 라브리(L'Abri)는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이며, 인생의 온갖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영적 피난처입니다. 정직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어떤 주제라도 라브리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질문이란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 라브리에서 "기독교세계관학교"를 합니다. 1월 7일(월)~10일(목) 설악산 추양수양관(한경직 기념관)에서 진행하며 회비가 있습니다. 세계관 공부에 필요한 청년들과 지도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아래의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labri.kr>
대표전화 033-673-0037
메일 yangyang@labri.kr